

'ACC 7관 개관' 광주·전남 회화작가 성장 발판 기대

창조원 내 전시관 첫 선 '번역된 가상: 이정기' 내달까지 '현재인' 등 20여점 작품...뉴스트 공모 4개팀 순차 선보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이 광주·전남지역 작가의 안정적인 창작 활동을 위해 마련한 전용 전시공간 '전시 7관'이 새롭게 문을 열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문화창조원 전시 7관의 개관과 함께 '2026 ACC 뉴스트(NEWT)' 작가 공모전 첫 전시 '번역된 가상: 이정기'를 선보인다.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ACC는 기존 복합전시 1~6관 외 평면 회화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인 전시 7관을 새롭게 마련했다. 전시 7관은 지역에서 평면 회화 위주로 활동하는 작가의 창작 활동 지원 및 전시 기회 확대를 위해 ACC가 새롭게 조성한 전시 공간으로, 향은·향습·조명 등 작품의 보존과 전시 환경을 고려한 시설을 모두 갖췄다.

이곳은 지난해 말 진행된 ACC 뉴스트 작가 공모전을 통해 뽑힌 예술인 5팀의 전시로 채워진다. 'ACC 뉴스트'는 새로움을 뜻하는 'New'와 예술가 'Artist'의 합성어로, 공모에서 선정된 작가에게 전시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는 작가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해 총 4팀(5인)의 작가를 선정했다. 이번 이정기 작가의 전시를 시작으로 임수범·하승완 작가의 '이형의 뱀'(5. 7~6. 7), 양나희 작가의 'Useless... but Beautiful'(6. 18~7. 19), 서영기 작가의 '남겨진 밤'(7. 30~8. 30)이 차례로 열릴 예정이다.

전시관 오픈과 동시에 열린 첫 전시에서는 ACC 뉴스트 첫 주자인 이정기 작가의 작품이 회화, 설치 작품 20여점이 출품된다.

'우리들의 모든 것은 미래의 유물이 된다'라는 중심 주제 아래 이정기 작가가 26년간 해온 작품들을 압축적으로 만날 수 있다. 현대인의 불안정한 내면과 사회적 불합리함을 상징하는 파편화된 거울, 저축의 상징이었던 점차 효용성을 잃은 돼지저금통 형상 등을 소재로 과거 혹은 현재의 일상적 사물을 미래시점에서 바라봤을 때 미래의 유물처럼 표현된 작품이 주를 이룬다. '번역된 가상'이라는 타이틀에서 엿볼 수 있듯 역사와 동시대 사회에 대한 개인적 경험 및 감정을 바탕으로 현실의 장면을 새롭게 해석한 작품들을 마주할 수 있다.

전시장에 들어서면 개인 거울 조각으로 만들어진 '시대의 유물-수면 I'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다. 사람의 상반신 형체가 파편화된 거울로 표현된 이 작품은 세월호 사건에 빚대 비극적인 기억을 상기시킨다.

이어 개인 거울 조각이 뒤집힌 돼지저금통 무리 'Piggybank'는 단단하지만 깨지기 쉬운 거울로 현대인의 모습을 드러내며, 잘못 짚어 문헌 돼지저

금통의 지층단면을 형상화한 '사물의 풍경 3'과 '사물의 풍경 2'는 소비사회 안에서 잔존하거나 사라져가는 것들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벽면에 설치된 '현재인' 시리즈는 실제 인물들을 라이프캐스팅한 뒤 그 모습을 왜곡해 평면에 옮겨 급변하는 사회 속 인간의 존재를 담담히 보여주며, 가족의 얼굴을 담은 '시대의 유물을 보다' 시리즈는 개인의 삶과 역사를 중첩시켜 근현대사를 거쳐 굴곡진 삶을 감내해온 이들의 모습을 기념비적 존재로 재구성한다.

미술사학자 에른스트 고프브리치가 '예술은 없다. 오로지 예술가만이 있을 뿐'이라고 한 말에서 차용한 텍스트 기반 작업 '사자의 서'는 전쟁과 인간의 관계를 되돌아보게 한다.

작가는 출품작 중 가장 애착이 가는 작품으로 페이크 다크멘터리 형식의 영상 작품인 '희귀한 유물'을 꼽았다. 임신한 여성의 형상이 미래에 화석으로 발견된다면 다양한 해석을 내놓을 수 있다는 상황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아내가 첫 아이를 임신했

을 때 라이프캐스팅 한 작품을 기반으로 만든 영상이라는 설명이다.

이정기 작가는 "7관이 개관하면서 처음 선보이는 전시라는 점에서 두려움과 영광스러움이 교차한다. 첫 개인전 이후 26년간의 작업들을 돌아보고 정리하는 전시"라며 "다양한 해석이 공존하는 미래적 현재시점의 작품들로 관객들과 성찰의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

김상욱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은 "전시 7관은 광주·전남지역에서 활동하는 평면 회화 작가들이 다양한 작품 세계를 선보이고 시민과 만날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이라며 "'ACC 뉴스트' 전시를 통해 창작자들에게는 새로운 발표의 장을 제공하고, 관람객에게는 동시대 미술을 경험할 수 있는 전시 프로그램을 지속 선보일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2026 ACC 뉴스트 작가 공모전 첫 전시 '번역된 가상: 이정기'는 26일부터 오는 4월 26일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전시 7관에서 열린다.

글·사진·정재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전시 7관 오픈과 함께 첫 전시로 선보이는 2026 ACC 뉴스트 작가 공모전 '번역된 가상: 이정기' 전경.

책표지 원화와 출판 디자인 함께 구경할까

신세계갤러리, '책의 얼굴들' 기획전 내달 21일까지 배우 박정민 운영 출판사 참여 장명 등 6명 선보여

책표지 원화와 출판 디자인을 함께 보는 전시가 마련된다.

광주신세계갤러리는 책의 표지를 그려온 작가들을 초대해 기획전을 오는 4월 21일까지 '책의 얼굴들'이라는 타이틀로 갖는다.

지난 14일 개막한 이번 전시는 책의 표지 원화와 실제 출판물을 함께 선보이며, 책의 첫인상을 결정짓는 표지 그림과 출판 디자인의 관계를 살펴보는 자리다.

책의 표지는 수백 페이지에 걸친 이야기를 한 장의 이미지로 압축해 전달한다. 독자는 책을 펼치기 전, 표지를 통해 작품의 분위기와 세계를 먼저 만나게 된다. 표지 그림은 책의 내용을 함축하는 동시에 독자의 상상을 자극하며 독서 경험의 출발점이 된다.

이번 전시에는 기묘, 김민주, 안소현, 윤연우, 장명, KATH 등 여섯 명의 작가가 참여한다. 기묘 작가는 일상적인 사물을 따뜻한 색감과 감각적인 구성으로 풀어내며 서점의 수많은 책들 사이에서도 눈길을 끄는 이미지를 만들어왔다. 식물과 자연을 소재로 사유의 풍경을 그려온 김민주 작가의 작업은 책에 또 다른 생명력을 더한다. 안소현 작가는 고요한 풍경과 정서적 여백을 담은 그림으로 다양한 도서의 표지를 장식해 왔으며, 광주를 중심으로 활동해온 윤연우 작가는 회화와 테이프스트리, 디지털 매체를 넘나드는 작업을 통해 출판물과 미술 사이의 확장을 시도해 왔다. 또 배우 박정민이 운영하는 출판사 무제의 첫 베스트셀러 '첫 여름 완주'의 표지를 작업한 장명 작가의 일러스트와 색연필 특유의 질감을



안소현 작 '기묘함'



KATH 작 '우리들의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살린 그림으로 다양한 출판물 작업을 이어온 KATH 작가의 작품도 함께 소개된다.

이번 전시는 작가들의 원화와 그 그림이 실제로 사용된 책을 나란히 전시해, 책이라는 형식 안에서는 온전히 드러나지 않았던 작품의 매력과 출판 디자인의 과정을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됐다. 관람객은 원화와 인쇄된 책을 비교하며 표지 이미지가 책이라는 매체 안에서 어떻게 변주되는지를 경험할 수 있다. 작가의 원화와 출판된 표지 디자인 두 가지 버전으로 제작된 전시 포스터 역시 이번 전시의 성격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전시에는 광주 독립서점 '책과생활'이 함께 참여해 열람용 도서와 전시 도서를 선보이며 관람 경험을 더욱 풍성하게 만든다. 관람객들은 전시 기간 동안 전시 도서는 물론 작가들이 만든 굿즈도 감상하고 구입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지역서점과의 상생에 지향하는 동시에, 독자를 책으로 안내하는 책표지의 역할을 관람객들에게 감각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이번 전시 기간에는 스탬프 판화 염서 제작, 책 속 나만의 문장 필사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책과 그림을 더욱 가깝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전시를 기획한 백지홍 큐레이터는 "봄은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고 도서관의 날과 세계 책의 날이 찾아오는 시기다. 광주신세계갤러리는 이번 전시를 통해 책의 첫인상이 되는 표지 그림을 다시 바라보고, 책과 이미지가 만나는 순간의 의미를 관람객들과 나누고자 한다"고 밝혔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문인 책임 되새기며 문단 가치 모색 계간 문예지 '문학춘추' 봄호 발간

광주·전남을 연고로 1992년 창간돼 현재까지 발행 중인 계간 종합문예지 '문학춘추' 봄호(통권제134호)가 출간됐다.

이번 봄호는 혼란의 시대 속에서 문학이 지녀야 할 역할과 문인의 책임을 되새기며,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나아가는 문단의 가치를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적으로 한국 문단의 원로 시인이자 아동문학가인 박두순 시인의 '문학과 인생 이야기'를 통해 한 평생 문학을 향해 걸어온 삶의 여정을 조명한다.

산골에서 자연과 더불어 자란 유년의 기억, 종교교 시절 도서관에서 빌린 책을 밤늦도록 읽다가 이불을 태운 일화, 그리고 문학을 위해 직장을 내려놓았던 결단까지 그의 삶과 문학이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를 깊이 있게 들여다 볼 수 있다.

또 표인주 전 전남대학교 박물관장의 '시는 정서적 출발점이자 감성의 공감장이다'를 통해 시가 인간의 내면 정서를 언어로 형상화하고, 개인의 감정을 보편적 공간으로 확장시켜 문학의 본질을 성찰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밖에도 이번 호에는 신춘문예로 등단해 활발히 활동 중인 정철웅 시인을 비롯해 문산석·이성자·이옥근·강순아·양인숙 아동문학가, 송명화 수필가, 이민주 소설가 등 다양한 장르의 작가들이 참여해 시와 동시, 수필, 소설 등 다채로운 작품을 선보인다. 이외에 제132회 문학춘추 신인작품상 당선작도 수록됐다. 이번 신인작품상에는 김경동 시인(대구), 백종호 시조시인(완도)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노남진 발행인은 "급변하는 시대일수록 문인은 가치의 저울이자 시대의 나침반으로서 사회가 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비추는 정신적 등불이어야 한다"면서 "지금의 혼란 또한 지나가고 문단에도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걷는 아름다운 길이 펼쳐지기를 바란다. 이번 봄호가 독자들에게 문학이 전하는 위로와 성찰, 그리고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계간 '문학춘추' 봄호는 전국 주요 서점과 문예지 정기구독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안견이 그린 이상향...무용수들 수목화로 표출

ACC재단, '몽유도원무' 내달 3~4일 예술극장

조선시대 화가 안견의 붓끝에서 탄생한 이상향이 한 폭의 수목화처럼, 무용수들의 움직임으로 되살린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사장 김명규)은 오는 4월 3일부터 4일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예술극장 극장2에서 국립무용단의 대표 레퍼토리 '몽유도원무'를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찾아가는 국립극장' 공모사업 선정작으로, 평소 쉽게 접하기 어려운 국립예술단체의 우수 작품을 지역 관객에게 소개하여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문화예술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 공연예술 생태계에도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몽유도원무'는 조선시대 화가 안견의 걸작 '몽유도원도'에서 영감을 받아 이상향을 향한 인간의 염원과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의 삶을 시적으로 풀어낸다.

한국적 미감과 동시대적 감각이 어우러진 안무, 섬세하면서도 역동적인 군무가 어우러져 한국 창작무용의 미학을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전통의 정

서와 현대적 해석이 조화를 이루며, 관객에게 깊은 울림과 정면의 아름다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김명규 사장은 "이번 공연은 지역 관객이 국립예술단체의 완성도 높은 작품을 현장에서 직접 만날 수 있는 뜻깊은 기회"라며 "앞으로도 지역과 협력하는 우수 공연 유치를 통해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연은 26일 오전 10시부터 전당재단 누리집(www.accf.or.kr)을 통해 예매할 수 있다.

정재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